

기업재무의사결정에 대한 성서적 이해

차용,대부,할인 정책을 중심으로

A Biblical Approach on Corporate Financial Decisions
: Debt and Credit Policies

한장순

- I. 서론
- II. 기업경영의 성서적 모델
- III. 기업의 경제적/성서적 가치와 부채
- IV. 기업의 재무구조와 금융환경의 현실
- V. 기타 주요이슈
- VI. 결론

Abstract

The biblical principles on corporate decisions on credit and lending policies, which Larry Burkett has asserted in his "Business by the Book", are limited in their biblical applications to corporate financial management. He overlooked ample and flexible interpretations of the business activities which can be found in the Bible. However, his book is marked as the first attempt for applying a biblical approach to the corporate financial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d's Principal-Agent Relationship". The God's agency relationship model deals not only with rational corporate management, but also with biblically-rational corporate management which solves conflicts and problems inherent in national corporate management. The issues on "collateral and law-suits"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our responsibilities for both love and justice, and guided by the flexibility of Holy Spirit. The problem of dual pricing should be accepted, if and only if the premium is set by fairness and justice.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maintain and restore the God's agency relationship, this study suggests a coworking relationship between a business firm and a Christian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s as a delegated monitor and consultant.

요 약

래리 버켓이 성경 속의 경영학에서 제시한 차용, 대부 결정 등에 대한 성서적 원칙은 성서의 기업 경영에의 적용을 제한하고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회피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기업재무결정 등의 현대적 기업의 주요 경영정책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대리인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고, 사례에 나타난 결과는 차용, 대부 그 자체에 의한 원인보다는 이 대리인 관계에 대한 위약에 따른 기업의 상실로써 설명된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 행위의 모델은 합리적 경영을 추구하나, 또한 합리적 경영이 안고 있는 모순과 문제를 극복하는 적극적 기업 모델이다. 따라서, 부채는 기업의 성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재무 기술적 도구가 되지만, 믿음의 자본과 갈등할 때 그 제한성을 갖는다. 담보 설정과 소송의 문제는 성령님의 유연하심 앞에서 겸손히 그 분의 지혜를 구하여야 할 부분들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우리 대리인의 책임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核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증가격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화된 그러나 공정한 표준가격의 설정과 하나님 정의의 실현을 위한 Premium based on fairness & justice의 가격정책이 더욱 요구되는 때이다. 그리고, 오늘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와 어려운 금융 현실 하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관계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안들 중 하나는 기업과 영적, 기술적 동역 관계를 갖는 조직화된 하나님의 전문가 집단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 본 원고는 저자가 기독교 경영 연구원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1996. 10. 5)을 간추린 것이고, 저자의 개인 견해일 뿐임을 밝혀 둔다.

I. 서론

“래리 버켓”¹⁾이 제시한 차용이라는 경영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세 가지 기본적 성서적 원칙(일시성, 비담보, 단기성)은 성서의 기업 경영에의 적용을 제한하고 본질적 문제 접근을 회피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가 지적한 것처럼 차용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제시한 사례들은 이 위험들의 현실화된 모습들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차용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은 차용 또는 부채 자체가 안고 있는 재무 리스크(Financial risk)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기업 경영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대리인 계약에 대한 위반과 이와 관련된 위험 상황으로 분석된다.

래리 버켓의 차용에 관한 세가지 기본적 성서적 원칙인 일시성, 비담보, 단기성을 뒷바침하는 사례들의 근본적 원인은 위의 하나님이 제시한 대리인 모델의 위약이거나 경영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무지 또는 복합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경영의 기술적인 측면 역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야훼께서 맡기신 기업 대리인의 동역자로부터 찾으시는 합리성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책의 구두체인점은 비적정 자본 구조, 무리한 확장, 경기변동에 측과 계획의 부재등이 요인이 되었고, 로저의 철강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관리소홀(미국에서 당시 은행의 도산은 국내 중소기업의 도산만큼이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에서, 또 에드가의 부동산 개발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한 일종의 대리인 비용의 문제에서 그 결과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턴사의 경우도 차용보다는 경영미숙(Mismanagement) 또는 영업의 비효율성(Operating inefficiencies)에 따른 문제이고, 건축 자재업자 코리는 비정직한 보고와 재고관리의 미숙으로 경영 실패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에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성서

1) 래리 버켓의 「성경 속의 경영학」(*Business by the Book*), 김종근 譯, 엠마오, (1995), 13-15장.

의 절대성이라는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성서적 일반 모델인 하나님의 대리인 모델을 제시한다. II에서 서술한 하나님의 대리인 모델을 토대로 III에서는 차용과 대부 결정 등의 기업재무정책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술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부채와 관련된 기업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부채 그 자체(일시성, 비담보성, 단기성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리인 관계의 위약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IV에서는 현대 기업의 재무구조와 금융현실을 살펴봄으로써 본 원고의 주제가 갖는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대안을 성서적으로, 그리고 경영의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해 본다. 이중가격, 소송의 문제 등,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것은 V에서, 향후 연구 과제는 VI에서 생각해 볼 것이다.

II. 기업경영의 성서적 모델

기업 경영에서의 성서의 절대성

하나님 기업의 경영 지침이 성서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눅 12:48). 누가복음 12장 41-48절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소유물과 소유자 및 청지기 등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야훼 하나님은 가나안 경계에서 땅 진입의 순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신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수 1:7-8). 가나안은 윤택하고 매력적인 땅이라는 것을 누구나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날, 기업에게 주어진 투자 기회는 시장의 국제화 및 통합, 규제 완화, 기술과 컴퓨터에 의한 혁신 등으로 인해 전례없이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결코 이스라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빈 공간이 아니다. 또한 그 땅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장대한 대장부들 앞에서 경험 없고 자본 없는 메뚜기같은 자들에게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협의 땅이다(민 13:32-33). 이미 시장은 철기류와 모든 이동 수단을 다룰 줄 아는 가나안의 영토이고, 그들은 잔인할 정도로 비타협적이며 전문가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야훼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대한 호소는 따라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특이하다.²⁾ 이것은 풍요의 근원이 야훼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땅’ 그리고 ‘기업’ 자체로부터 온다는 유혹의 가능성, 행복을 사유화하려는 유혹의 가능성, 그리고 그 유혹과 타락의 끝은 곧 죽음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야훼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지키는 용기를 강력히 요구하시는 것이다(신 8:11-17, 11:16). 그러므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확실성 하에서 ‘성공’과 ‘번영’은 야훼의 말씀에의 절대적 순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보장된다. 이것이 하나님 기업의 경영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기업 경영의 성서적 모델 : 하나님의 대리인 모델

기업 경영에 있어서 성서적 원리의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기술과 기법에 대하여서는 성서가 특별히 기술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2) 월터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은 *The Land*(『성서로 본 땅』, 강성열 역, 나눔사 (1992))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모험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이 호소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원수들을 무찌르는 용기, 즉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등에 있는 것보다는 토라를 지키는 용기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핵심적인 적은 아마도 토라를 망각할 가능성, 즉 유혹이고 탐심이며, 그 유혹은 賸物로서 주어진 땅은 그 선물들 속에 이스라엘의 실존을 확보해 줄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 경영의 일반 모델 또는 원리를 약속의 땅을 허락 받은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 땅은 관리되고 정리되며 통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그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잘 사용해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다. 현대 성서신학(구약)의 대가인 “윌터 브루저만”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적절한 관리 형태가 선물로서 주어진 땅의 성격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땅에 적합한 왕정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하였다. 요단강 저편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기억들은 지속적인 관리제도들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가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왕정에 대한 어떠한 모델도 제공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동일한 안전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관찰했던 것이다(삼상 8:5, 19-20). 그러나, 놀랍게도 신명기 17장 14-20절에 보여주고 있는 상이한 왕권 개념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왕정을 허락하면서도 땅 관리의 모델로 왕정의 성격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14-15절).

성서 시대의 시대적, 공간적 무대가 오늘의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오늘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의 기업 경영에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하겠다. 예컨대, “네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주체-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합리적 경영을 추구하나, 또한 합리적 경영이 안고 있는 모순과 문제를 극복하는 적극적 모델로서 이해된다. 신명기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훼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대리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대리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

고, 둘째, 대리인에 대한 금지 사항이다. 즉, 말, 아내, 은금이 그것이다(신 17:16-17). 말들에 대한 것은 자신을 의지하려는 노력이요, 많은 아내들은 방종을 상징하고, 정략결혼이나 조약체결 등을 통하여 신뢰할 만한 동맹 체제를 통한 경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금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기업 경영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토라’를 통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것으로서 ‘토라’의 기업 경영에서의 절대성을 규정한 것이다(신 17:18-20). 즉, 기술적인 결정들과 세부 사항 등의 기업 자체보다는 그 기업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길은 관심의 대상을 ‘토라’에로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대리인의 모든 기업 행위는 ‘토라’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기업은 자기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자연을 숭배하는 풍요의 종교로 끌어 들여 그 신앙을 소유와 땅 관리로 만들어 버리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III. 기업의 경제적/성서적 가치와 부채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재무정책

일반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에 있다. 경제적 가치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간(Time), 기대되는 현금의 흐름(Cash flow), 위험도(Risk). 따라서, 기업의 투자 기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기업은 이러한 선택된 투자 또는 자산들의 포트폴리오이다. 시장은 이러한 투자 기회 또는 기업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회 비용으로 투자 수익률을 요구하는데 이때 역시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물론 위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예측과 측정을 위해 통계적 신뢰구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신앙에 입각한 “보이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주관성으로 인하

여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일반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의 투자 행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업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재무 정책(경영의 기술적 요소)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 자본조달결정(Financing decision) 또는 자본구조정책(Capital-structure policy),³⁾ 투자결정 또는 자본예산결정(Investment decision or capital budgeting), 배당결정(Dividend decision).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술적이고 재무적인 결정은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차용, 대부 및 할인 정책은 위의 세 가지 결정의 하나 또는 복합적인 의사 결정 문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대부 결정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투자결정이고 예금에 의한 자본조달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자본구조의 성격에 따라 은행의 대부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기업의 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와 부채의 제한성(부채의 대리인 비용)⁴⁾

기업은 기업과 관계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계약들의 집합(Nexus)이며, 기업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法(계약)적인 場이다.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는 주가(Stock price)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주인(Owner)은 주주이고 주인의 이해가 가장

3) 기업은 최소의 자본비용에서 운영하고자 적정자본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효율적이고 경쟁적 시장의 경우, 기업의 자본조달결정에 있어서 금융공학을 이용하여 부채 관련 신용 융상품을 개발한다 할 지라도 특허권이 없어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부채자본의 효과는 감쇄효과가 그 주가 된다(이는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서의 부채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후 자본 비용에 있게 된다. 부채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100% 부채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부채의 제한성에 기인하며 이에 적정자본구조가 존재한다고 보며, 일반 기업은 합리적이고 유연한 부채정책을 위해 미래의 예기치 않은 자본조달 능력의 고갈에 대비하게 된다.

4) 참조: Ross, Westerfield & Jaffe의 *Corporate Finance*, 4th. ed., Irwin (1996), 16장.

중요한 관심사이다.⁵⁾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이러한 대리인 관계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의 위험 하에 있으며 이를 감독, 통제하고자 한다. 차용과 부채의 대리인 비용은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in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or financial distress*)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갖게 된다: 고위험투자(*Incentive to take large risks*),⁶⁾ 미투자(*Underinvestment*),⁷⁾ 자본유용(*Milking the property*)

5) 한편, 오늘날 소유와 경영의 분리(*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라는 현상 속에서는 경영자는 주주의 이해를 위한 충실한 주체-대리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의 이익에 상반되는 경영 정책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이로 인해 경영 자원을 남용 또는 낭비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6) 기업이 어려운 상황일 때, 채권자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정 수준 이상의 위험을 택하게 된다.

	저 위험 투자 (A)			고 위험 투자 (B)		
	확률	기업의 가치	주식+사채	확률	기업의 가치	주식+사채
침체기	0.5	100	= 0 + 100	0.5	50	= 0 + 50
호황기	0.5	200	= 100 + 100	0.5	240	= 140 + 100
기업의 기대 가치:	150			145		

(따라서,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A > B$)

주식의 기대 가치: 50 70

(따라서, 타인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A < B$: 즉, 주주는 고 위험도의 투자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채권자의 불이익을 담보하는 것이다).

7) 미투자 유인(*Incentive to underinvest*)

	투 자 시		비 투 자 시	
	호황	불황	호황	불황
현 금 의 흐름	5,000	2,400	6,700	4,100
채 권 자 지 분	4,000	2,400	4,000	4,000
주 주 지 분	1,000	0	2,700	100

불황시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투자(1,000: 투자비용), 1,700의 수익(*sure return*)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비용 1,000에 비해 주주 지분의 기대 가치의 증가분은 900 (= 1,400-500)이므로 주주는 장기적 안목에서 자기자본에 의해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에 의한 수익 증가의 혜택을 채권자와 공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y).⁸⁾

그렇다면, 누가 대리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Who pays for the cost of selfish investment strategies)? 대리인인 경영자 또는 주주는 자기 이해를 위해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 행위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장이 효율적이고 채권자가 ‘Rational’하다면, 이 비용의 부담은 대리인 또는 주주의 몫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업을 상실할 위험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물론, 시장이 이러한 그릇된 기업 행위의 동기를 예상, 이에 감독과 통제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은행 및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정보의 재생산을 통한 경제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위임된 감독자(Delegated monitors)’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때문에 기업은 역으로 이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그릇된 대리인 관계 상황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속성상 최적의 행동을 도출해 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리인 관계에 따른 나머지 비용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 손실 부담은 기업과 시장 또는 경제 전체가 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성서적 가치와 부채의 한계

성서에서의 ‘기업’은 실질적 의미로서의 안식과 상징적 의미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제공하는 場 등으로 묘사되며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인 맥락에서 정의되어 진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는 하나님의 중심 약속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증해 주는 곳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삶과의 관계라는

8) 기업이 어려울 때, 비정기적 배당 또는 기타 배분을 통해, 채권자의 지분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며, 위의 미투자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대리인 행위이다.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삼하 7:5-6). 즉, 기업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주어진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아예 내어 맡기는 자유 선택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은 일반 세속적 기업과는 달리 그 기업 행위의 동기를 *Self-interest*가 아닌 *Gods Interes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업의 가치도 이를 추구하는 데서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성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눅 12:15)고 규정하면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기회(*Investment opportunity set*)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를 포함하고 이는 하나님의 기업에게는 무한한 효율적 투자기회선(*Unlimited efficient frontier*)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4:18). 이는 매우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나 매우 확실한 무위험 투자요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이 크다(눅 12:33). 따라서 기업이 *Biblically rational*하다면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할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Justice*) 실현의 도구가 될 것이다. 사법적 정의는 한 손엔 저울(형평)을, 다른 한 손엔 칼(법의 집행력)을 들고 눈을 가린(공정) 정의의 여신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많건 적건 각자에게 각자의 합당한 몫인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는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나누어 주는 “만나”의 정의이고, 많고 적음으로 해서 불평등하고 험난한 곳에 평등한 인간 사회를 구축하는 정의다(사 40:3-5). 따라서, 성서적 기업의 행위는 기업 관련 계약 당사자들 모두인 기업 공동체의 최선을 추구함을 지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주주의 부 역시 극대화된다.

야훼께서 설정하신 대리인 계약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경영 제도이다. 위 ‘일반 기업의 대리인 관계에서 갖는 부채의 제한성’은 시장원리에 국한된 것인데 반하여,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 경영을 위해 조달되어야 하는 부채 또는 차용이 갖는 한계는 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이 “하나님의 대리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비롯된다. 즉, 이는 자기 안전과 이익을 위해, 형제와 자매의 그것들을 착취하는 행위, 어려운 상황에서 ‘토라’를 기억하고 주의 능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을 의지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대리인 관계의 주체(*Principal*)가 되시고, 인간과 환경의 모든 것

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독점하고 제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그의 신묘막축이 우리를 감찰하신다(시 139).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기업은 부채 등의 보이는 자본에 의한 투자에 앞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그 주요 자본이 되어야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자본은 비용없는 자본이 아니다(not free of charge).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투자의 결과는 이에 비교할 수 없다(딤후 4:6-8). 그러므로 대리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터잡은 “믿음의 자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Myers”교수의 이른바 “Pecking order”⁹⁾의 자본 선택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Dominating capital).

하나님의 대리인 모델로 본 래리 버켓의 사례

래리 버켓의 사례에서 보여진 결과는 이러한 대리인 관계의 위반 사례인 것처럼 보인다. ‘잭’이 소유한 텍사스 주 휴스턴시의 ‘구두 체인점’의 경우, 부채의 감세효과, 레버리지 효과만을 고려한 나머지 적정자본구조 안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 변동에 따른 계획없이 과도한 확장과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경영한 결과이다. 하나님보다는 회계사를 더 신뢰한 이 기업 경영의 결과는 기업 상실(파산)이라는 엄청난 현실로 이어졌다. 이는 이스라엘 왕정의 말로와 포로기는 이 대리인 계약의 위반에 그 원인이 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은 합리적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마 5:5).

에드가의 부동산 개발 사례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대리인 계약에 대한 전형적 위반 사례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제도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에 의한 대출을 늘임으로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9) 참조 : Myers, S. C., “The Capital Structure Puzzle”, *Journal of Finance*(July, 1984); 기업재무에서의 Pecking-order 이론은 기업의 장기자본 조달에는 Pecking order(우선 순위)가 있는데 첫째, 내부 유보 및 감가상각충당금, 둘째, 부채 등의 타인자본, 셋째, 주식 등의 자기자본의 순으로 수익성 사업의 투자자금을 조달한다는 자본구조정책 관련 이론을 말한다.

극대화시킨 것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버켓은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신 15:1)는 “탕감의 해” 선포의 맥락에서 장기적 부채를 멀리하라는 것이 성서적 원칙임을 주장하고 위의 사례의 결과는 장기 부채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장기 부채는 기업의 일반적 자본 조달의 수단이 되고 있고, 적정자본구조를 유지하는 한 유리한 자금조달원 중의 하나이다. 그 특성상, 30-40년의 장기 부채의 경우 자기자본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기업의 대리인 관계 상황하에서는 정보의 대칭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단기성 부채로 때로는 장기성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자본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 기회 수의 기간에 따라, 그리고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일환으로 부채의 만기는 조정되기도 한다. 논지의 요점은 부채의 단기성과 장기성에 대한 고려는 매우 기술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에서 “탕감의 해”를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과연, 야훼께서는 장기 부채 또는 부채의 장기화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에서 몇 가지의 과제를 명 받는다. 그 중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은 처음에 종들을 자유케 하는 날이었으나(출 21:1-11; 신 15:12-18), 나중에는 땅을 쉬게 하고(레 25) 빛을 창산하는 날로 발전하였다(신 15:1-11). 이에 대한 ‘윌터 브루거만’의 통찰력 있는 관찰을 우리는 눈여겨볼 만하다.

“안식일은 우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삶을 관리하고 땅을 재편성하려는 우리의 최상의 노력들에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빛의 안식(탕감)은 인간 사회가 궁극적으로 사고 파는 일이나 빚지고 빚잡는 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극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다. 땅을 얻은 백성은 사물들을 관리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물들을 관리할 때 사람들까지도 관리하려고 한다. 우리는 조세와 이율로써, 그리고 빛과 저당권으로 그들을 관리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소유하는 자들 아니면

소유당한 자들의 한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역사를 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에 안식일은 사람이 땅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소유되거나 관리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과 땅은 계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 따라서 그것들에게는 계약된 자리로서의 땅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존중해야만 하는 위엄과 존경심 및 자유 등이 주어진다..... 안식일은 상황을 배제한(Contextless) 공간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는 장기 부채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떠한 위험성을 경고한다기보다는 무한정한 탐욕(암 8:4-6)에 대한 유일한 방편으로 당시 상황 속에서 안식일은 주어졌다고 하겠다. 오늘날 기업은 이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출자는 대출을 이용하여 인간을 구속할 수 없으며, 차입자 또한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함께 타개책을 찾으려는 공동체적인 시도를 성서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요구한다. 만약, 그들이 대하여야 할 고객이 특히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 나그네, 고아와 과부, 레위인 등 기반없는 자들(분깃없고 기업이 없는)이라면, 이 “탕감의 해”가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의 시사하는 점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정리 및 요약

경영자 또는 주주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부채는 이를 위한 자금조달의 전략적 도구가 되나, 대리인 관계 하에서의 시장원리에 의하여 그 제한성을 갖고 있다. 즉, 이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자기 이익의 추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하나님의 대리인”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기업 경영의 모델은 위의 일반 기업의 대리인 모델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모델로서 이는

기업의 목적과 가치의 절대적 근거를 성서에 두고 있고, 그 기업행위의 동기를 Self-interest가 아닌 Gods Interest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의 한계성도 계약 당사자들 모두인 기업 공동체의 최선을 추구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믿음의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후순위성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래리 버켓”이 제시한 차용이라는 경영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세 가지 기본적 성서적 원칙(일시성, 비담보, 단기성)은 성서의 기업 경영에의 적용을 제한하고 본질적인 문제 접근을 회피할 수 가능성을 갖고 있다.

IV. 기업의 재무구조와 금융환경의 현실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와 금융현실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1994)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소기업체의 총차입금 잔액은 1990년 이후 연 2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1994년말 현재 31조 7,78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은행 및 금융기관에 의한 차입이 90.8%를 차지하고 약 2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도표 : 차입금 잔액 추이 참조). 의무대출비율제, 총액한도대출제,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의 신설 등의 정책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대출 등으로 은행의 차입금 비중이 높은 반면, 私債의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1996년도 한국산업은행의 재무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1990년도 이후 자기자본 비율은 23-25%의 범위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각 산업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도표 : 안정성 비율 추이 및 제조업 안정성 비율 참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1996년 은행경영통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1996년 은행경영통계는 기업자금대출의 기간별, 용도별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도표 : 기간별, 용도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일반, 시중, 지방은행 참조). 운전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일

반은행의 경우 1년 이하의 단기성 차입이 75%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전성 자금의 성격을 가질 때 보통 장기적 관계를 갖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있어서 부채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추세로 보아 위에서 서술한 대리인 관계에 따른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출의 대부분이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은행 및 금융기관이 “안식일의 거부”와 세속적인 금융 관행을 일삼을 때, 기업은 차입으로 인한 속박에 더욱 노출되어 있게 된다.

오늘날 중소기업에 있어서 금융 환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네피림의 후손의 땅’과 비유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어느 때, 어느 시장에든 자금조달시 항상 약자의 위치, 소외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불충분한 내부 유보와 감가상각충당금 등으로 내부 자기에 따른 성장 및 투자지원은 한정적이고, 대기업에 비해 지명도, 담보력, 교섭력에서도 뒤지고 있어서 외부자금조달은 용이치 않다. 시장원리에 의한 해결의 한계성과 정책금융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금조달 등의 문제와 경기의 양극화, 산업구조의 양극화, 중소기업 내 부문별 자금격차 등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WTO출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지원의 체계의 변화로 자금확보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기업의 왕성한 자금수요와 실세금리와 공급리의 격차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수요에의 회피현상은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자금위주의 여신할당, 저금리 정책으로 초과대출수요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자금수급의 불균형 상태 하에서는, 담보대출 자체도 쉽지 않은 상태에 있어 신용대출의 필요성은 제한되어 있다.

대안 : 기독교 금융기관의 필요성

오늘날의 기업환경 하에서 기업을 통한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회복이라는 미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을 도울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구

성원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기에(엡 2:20-22), 그리고 현실의 상황은 이러한 동역관계의 구조를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거니와, 기업은 어려운 금융환경에 있고, 하나님의 기업은 영적인 위협과 동시에 경영 기술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 관계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사와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는 적어도 두 가지 형태의 구조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내부조직(예, 이사회 등)’을 통한 형태이고 또 하나는 ‘외부 감시 및 자문기관(예, 기독교 금융기관 등의 기관투자자나 게이트 키퍼(Gate keeper)¹⁰⁾의 역할)’과의 동역관계이다. 특히, 오늘날 은행 및 금융기관은 ‘격기’등의 대출관행 등으로 기업에 많은 비용부담을 안겨 주는 압제의 관행과 지배자의 위치에서 특히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시대의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24장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의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감시, 자문, 투자기능을 갖춘 금융기관을 찾고 계실 것이다. 오직, 믿음을 담보로 한 그러나 충분한 능과 지혜를 가진 ‘유망한’ 하나님의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벤처자본가(Engel-capital investor)¹¹⁾와 게이트 키퍼, 그리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대리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감시 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금융기관은 자금 조달 및 경영 지도에서 고객 기업의 성서적 기업 경영을 위해 전략적 계획¹²⁾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10) 벤처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회사인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벤처산업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11) 비즈니스 애인절은 벤처기업을 위한 이 투자제도로써, 개인적인 자산가들이 설립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하게 된다.

12) 성서적 기업 경영을 위한 전략적 계획은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는 자기 성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 비전, 그리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최선의 전략을 지향하는 것이고, 합리적 계산에 의한 목표와 전략을 계속적으로 경계하는 것이다. (1) 오늘날 하나님의 기업은 어디에 있는가? (2) 하나님의 기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3)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할 것이다.

V. 기타 주요 이슈

여신 및 신용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보통, 은행은 기업체 종합 평점에 따른 산출 방법에 의해 가산금리가 결정되고, 여신결정은 이 평점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신용조사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산출 평점, 담보력, 기여도 등인데, 이외에도 관치 금융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신용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은(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 위의 요소에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기업의 행편을 고려하고 필요를 채워 주고, 그 사업의 성격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우선 순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담보설정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 시대적, 경제적 상황에서 “대부 조건으로 저당을 설정하지 말라”는 “래리 버켓”의 주장이 성서의 원칙이라면 성서가 제시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지침은 너무 제한적이다. 저당 및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성서는 우리가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먼저, 저당잡은 한 벌뿐인 이웃의 옷을 해 지기 전에 돌려주고, 아침에 다시 찾으라는 것(출 22:27-28; 신 24:10-13,17)은 저당설정의 가부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잡을 경우, 갚을 능력만 고려치 말고 이웃의 어려움이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눅 6:35-36). 그러나, 잠언 6:1-3의 담보 잡히는 자에게 주는 조언

은 얼핏 보기에는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와 긴박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곳이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부분이다. 즉,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용, 인보증 또는 보증대출 등과 관련하여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는 유연하신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인 것이다. 물론, 담보에 의한 대출의 편이와 이로 인한 보증에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앞선다면, 이는 분명히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오늘의 금융환경의 현실에서 볼 때, 담보설정 문제는 그 유무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늘의 금융기관의 대출관행 특히 여신심사, 채권회수지침 등의 맥락(Context)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중가격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는 Moral hazard와 Adverse selection 현상¹³⁾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공정 가격에 의한 상품 구매를 위해서 정보의 획득과 분석을 통하여(또는 권위있는 기관의 자료와 도움으로) 비둘기같이 온유하되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추”에 대하여서는 아주 단호하셨다(잠 11:1). 그리고, 사특한 자의 패역의 결과는 망함이다(잠 11:3).

‘이중 가격’의 문제에 대하여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은 먼저, 대출 금리에 대한 이중가격의 문제이다. 관치금융의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현 금융 시장에서, 비록 같은 기업체 종합평점 점수에도 불구하고, 표면화되지 않은 관행에 따라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종합평점 항목에

13) 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의 두 형태인 숨겨진 행동 (Hidden action)과 숨겨진 정보 (Hidden information)의 특수한 경우로서, 고의적인 화재나 사고, 또는 내부자 정보에 대한 문제는 이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참고: Arrow, K. J., “The Economics of Agency.” In John W. Pratt and Richard J. Zechhauser, eds., *Principals and Agents: The Structure of Busines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p. 37-51. [1985])

따라 주어지는 점수(예컨대,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금리는 공정한 가격결정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은행의 상부구조로부터 지시되는 대부 결정, 안면과 친분 관계에 의한 대출관행, 그리고 양전예금/격기에 의한 이중가격 결정은 이 시장의 미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기독교 금융인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부정직하게 작성하는 재무재표 등 기업정보의 기만과 불투명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만기별, 신용별 등에 의한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공평한 정책 하에서 운용된다면 그것은 차별화된 그러나 공정한 표준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 및 금융기관은 누가복음 16장의 “하나님의 공정한 표준가격”에 대한 定義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윤 또는 예대마진이 회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공정한 프리미엄(Premium based on fairness & justice)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장기적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Negative premium을 책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치금융 하에서의 정책금융의 이점을 이용하는 비정직성 및 범법성 또한 심각할 수 있다. 예컨대, 은행은 사업성 및 투자가치에 의한 여신결정 대신에 기보유 시설을 담보로 설정하여 시설투자자금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성만을 고려, 대출할 경우이다. 이 때, 고객기업은 저렴한 차입자금을 시설설치 등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제2금융권 등의 예금에 투자, 차익거래이익을 얻는 부정하고 노력없는 대가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대출자금을 필요로 하는 우량 중소기업들은 이로 인해 회생당하게 된다. 이상의 금융 현실은 기독교 금융인과 기독교 금융기관의 역할의 중대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소송의 문제

“래리 버켓”은 ‘채권소송’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 사이의 소송을 금하여야 함을 고전 6:7의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

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의 적용은 그 대상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확대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대부분의 소송은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분노, 복수, 탐욕, 자존심 등에 의해 시작되고, 형제, 자매인 상대방과 원수맺는 일로까지 확대되기 일쑤다. 고린도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초 기지로 세워졌고, 이방인들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요한 전도의 시기에 민사상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익에 직접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양보의 덕을 통하여, 비록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덕을 세우고 형제간에 관계를 해치 않는다면, 소송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 사이의 소송 자체를 금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소송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출 23:3;6-9, 신 1:16 이하에서 재판제도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인정하셨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친분관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평한 재판과 재판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강조하셨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 선과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대리인)”라고 묘사하고 있는 롬 13:1-7과 벰전 2:13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라도 소송 또는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다.

이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소송여부는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의 지체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파토스에 달려있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송여부 문제도 그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기독교 기업인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일반 기업은 법인체로서 법에 의해 존재하고 법에 의해서 해체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고린도교회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곳이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소송의 문제도 그리스도 개인에 대한 소송 문제와 그 관점을 달리할 수 없고, 기업 공동체는 각 구성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공동 책임 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기업경영에서의 기술적인 재무결정의 문제, 특히 차용, 대출, 그리고 가격 결정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기업을 통한 “하나님의 대리인 관계”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기업경영상, 기술적 또는 제도적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와 기업의 흥망은 기업 자체가 안고 있는 유혹과 탐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간 스스로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려는 관계 위약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가를 이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위약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신다. 새로운 관계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동역 대리인을 세우시기도 또는 대리인과 함께 기업을 상실케 하시기도 하신다. 이는 불과 20-30년 사이에 우리 가까이에서 보아왔던 기업들의 부침에서 더욱 확실하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선물에 대한 대리인의 인식은 자신의 Self-interest가 아니라 Gods Interest가 되어야 한다(롬 12:1-2). 대리인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즉, 주주, 채권자, 고용인, 소비자, 협력업체,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 등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눅 14:27).

기업 경영에 대한 성서적 이해는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오늘이라는 시대적 역사성과 경제, 문화,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볼 때 그 무대는 성서 시대의 그것과 아주 다르고 복잡하고 다원화된 ‘땅’이다. 그럼에도 성서의 절대성은 불변이고 오늘날 기업의 유일한 경영 계획서요, 지침서이다. 그러기에 기독교 경영인은 야곱과 같이 말씀과 삶 그리고 기업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

하고 고민하며 지혜를 구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연단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 경영을 위하여 이 시대와 역사 그리고 이 기업환경의 특수성 하에서 계속해서 성서에게 자문하여야 할 많은 기술적, 경영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100년 혹은 200년 후에는 질문되어지지 않을 것들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점’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것들임에 틀림이 없다. 기업이 당면하는 많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환경문제일 것이다. 환경 파괴의 결말은 이 땅(Earth)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 환경보전에 대한 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고 기업이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환경의 대리인인 기업은 이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의 초점은 기업의 통할 체제요 소유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이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과 진화론적 시장 개념이 팽배한 이 척박한 ‘땅’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지배 그리고 가치의 시너지(Synergy)효과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정의는 뒷전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성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것까지 지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애매모호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는 성령께서 펼치시는 유연하시고 다양하신 모습이며, 그 시대와 역사의 맥락 속에서 성령께 끝없이 조명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성서적 이해는 그러한 면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Pathos를 잇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우리의 경영학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판을 다시 짜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겸손히 구하는 接近方法이 요구된다(사 11:1-2).

참고 문헌 :

래리 버켓, 「성경 속의 경영학」(*Business by the Book*), 김종근 譯, 엠마오 (1995).

윌터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 「성서로 본 땅」(*The Land*), 강성열 譯, 나눔사(1992).

Arrow, K.J., "The Economics of Agency" In John W. Pratt and Richard J. Zechhauser, eds., *Principals and Agents: The Structure of Busines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p.37-51.(1985).

Myers, S.C., "The Capital Structure Puzzle", *Journal of Finance*(July, 1984).

Ross, S.A., R.W. Westerfield, and J.F. Jaffe, *Corporate Finance*, 4th. ed., Irwin(1996).

국민은행,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 1994.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1996.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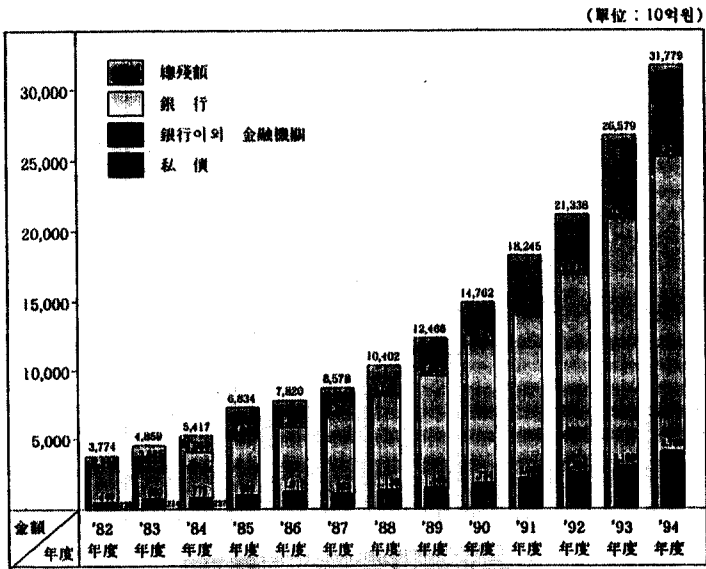


■ 한장순 ■

1957년 출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Emory University에서 석사,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박사학위 취득, 씨티은행서울지점 수입 및 외환담당, 한림대 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 금융연수원에서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성균관대학교도 출강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부 록

1. 차입금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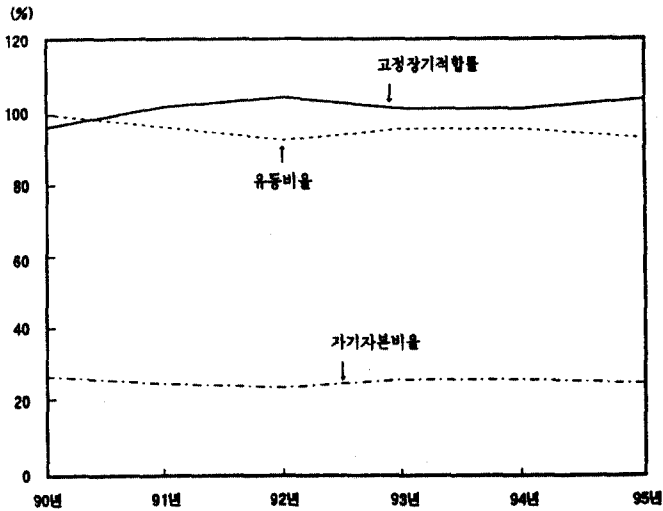


2. 안전성 비율 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자기자본 비율	25.94	24.03	23.54	25.13	24.43	24.68
유 동 비 율	101.92	95.84	93.16	96.08	96.14	94.32
부 채 비 율	285.57	316.10	324.79	297.93	309.35	305.19
고정장기적합율	97.47	101.44	104.00	101.40	101.89	103.63

3. 제조업 안전성 비율 추이



4. 제조업 안전성 비율

(단위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차입금의존도
제조업	총 합	94	24.43	96.14	62.64	220.02	101.89	46.30
		95	24.68	94.32	60.30	218.69	103.63	45.96
	대기업	94	25.87	97.01	65.06	215.68	100.70	47.33
		95	26.39	95.56	63.20	212.05	101.88	47.02
	중기업	94	20.85	94.35	57.67	233.37	105.45	43.75
		95	20.18	91.65	54.10	241.48	109.30	43.17
	음식료품	94	18.08	82.27	53.38	288.72	123.26	49.38
		95	19.18	81.06	53.71	281.04	123.88	51.09
섬유제품	94	26.04	93.79	45.57	213.39	104.58	47.84	
	95	24.46	90.63	42.61	223.54	108.22	49.34	
의복 및 모피제품	94	20.89	118.90	63.26	178.57	78.80	36.14	
	95	20.76	115.16	64.18	175.69	81.17	36.76	

5. 기간별, 용도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

(일반은행)

(단위 : 억원)

기간별 자금종별	6개월미만	6개월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기업자금대출	150,003	352,244	141,136	29,174	75,948	748,706
(중소기업)	(115,152)	(235,902)	(108,485)	(25,012)	(58,577)	(543,129)
운전자금대출	149,736	349,279	131,609	13,687	11,424	655,735
(중소기업)	(114,899)	(233,900)	(99,627)	(11,090)	(2,054)	(461,569)
시설자금대출	267	3,121	9,527	15,480	64,524	92,919
(중소기업)	(253)	(2,002)	(8,858)	(13,922)	(56,524)	(81,560)
특별자금대출	0	44	0	7	0	51
(중소기업)	(0)	(0)	(0)	(0)	(0)	(0)
가계자금대출	5,888	81,037	68,935	9,385	4,864	170,107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767	3,664	1,728	1,081	3,360	10,600
재형저축 자금대출	14	229	1,560	7,074	265	9,142
주택자금대출	61	1,106	8,732	5,576	12,181	27,658
은행간 자금대여금	0	24	1,105	230	4,846	6,206
합 계	156,733	438,506	223,196	52,520	101,463	972,417

주 : 은행계정 원화대출 기준임

6. 기간별, 용도별 대출금 현황(1995년말 현재)

(시중은행)

(단위 : 억원)

기간별 자금종별	6개월미만	6개월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기업자금대출	106,539	300,033	111,709	22,697	63,530	604,508
(중소기업)	(74,877)	(190,967)	(81,233)	(18,943)	(46,714)	(412,735)
운전자금대출	106,298	296,971	107,706	12,034	10,683	533,691
(중소기업)	(74,650)	(189,041)	(77,855)	(9,576)	(1,591)	(352,714)
시설자금대출	241	3,018	4,003	10,656	52,848	70,765
(중소기업)	(227)	(1,926)	(3,377)	(9,367)	(45,123)	(60,021)
특별자금대출	0	44	0	7	0	51
(중소기업)	(0)	(0)	(0)	(0)	(0)	(0)
가계자금대출	2,011	71,553	61,815	8,879	4,756	149,011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200	2,932	871	554	2,487	7,045
재형저축 자금대출	11	224	1,552	7,073	264	9,124
주택자금대출	19	947	7,880	5,505	11,192	25,545
은행간 자금대여금	0	24	893	152	1,776	2,846
합 계	108,779	375,712	184,720	44,861	84,006	798,077

주 : 은행계정 원화대출 기준임

7. 기간별, 용도별 대출금 현황

(지방은행)

(단위 : 억원)

기간별 자금종별	6개월미만	6개월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	43,464 (40,275)	52,412 (44,935)	29,427 (27,252)	6,477 (6,068)	12,417 (11,863)	144,198 (130,394)
운전자금대출 (중소기업)	43,438 (40,248)	52,309 (44,859)	23,903 (21,771)	1,653 (1,514)	741 (463)	122,044 (108,856)
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	26 (26)	103 (76)	5,524 (5,481)	4,824 (4,554)	11,676 (11,400)	22,154 (21,538)
특별자금대출 (중소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가계자금대출	3,877	9,484	7,120	506	108	21,096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567	732	856	527	872	3,555
재형저출 자금대출	3	5	9	1	1	18
주택자금대출	42	159	852	71	989	2,113
은행간 자금대여금	0	0	212	78	3,070	3,360
합 계	47,954	62,793	38,476	7,659	17,457	174,340

주 : 은행계정 원화대출 기준임